

한국 · 중국 · 베트남 애정전기의 여성과 애정 —「금오신화」·「전등신화」·「전기만록」을 중심으로—

정유진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창작된 「금오신화」·「전등신화」·「전기만록」의 애정전기에 등장하는 여성과 남녀간의 애정관계를 비교분석한 글이다. 애정전기는 중세 한자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창작된 문학장르로서, 특히 여성이 주요인물로 등장하고 전통적 여성상과는 다른 면모를 지닌다는 점에서 여성문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분석 결과 삼국 애정전기의 여성인물은 정욕을 긍정하고 상대남성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애정관계에 닥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삶에 대한 주체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애정전기에 등장하는 몇몇 남성인물은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 중세적 통념을 벗어난 진전된 시각을 보여주었다. 「전등신화」와 「전기만록」의 남성인물은 정절을 잃은 상대여성에 대해서도 변함 없는 사랑을 지님으로써 중세적 통념과는 무관한 애정을 보여주었고, 「금오신화」의 남성인물은 상대여성과의 관계를 '지움'의 관계, 혹은 정신적 동지의 관계로 여김으로써 평등에 가까운 애정관계를 보여주었다. 한편, 「전기만록」에는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 가부장제적 이중시각을 지닌 남성인물도 등장하고 있어 「전등신화」나 「금오신화」와 차이를 보였다.

「전등신화」와 「금오신화」의 작가는 기본적으로 중세 가부장제의 전통적인 여성인식을 완전

히 부정하거나 거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유교적 윤리규범에 우선하는 휴머니즘이나 저항정신은 당대의 통념을 벗어나는 진전된 여성인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기만록』은 다른 두 작품과는 달리 유교적 윤리규범의 실천과 교화를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작가 완서는 중세 가부장제적 여성인식에 가장 충실한 작가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만록』은 작품과 논평으로 분리되는 이원적 구성을 지니므로써 역시 작품 속에 그려진 여성형상 및 애정관계는 중세적 통념을 벗어남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애정전기, 애정주체, 애정관계, 남성의 태도, 중세적 통념.

1. 머리말

전기소설(傳奇小說)은 중국의 당(唐)나라 때 성립되어 한국·베트남·일본 등에서 잇따라 창작된 중세 한자문화권의 보편적 문학장르이다. 특히 애정전기의 여성인물은 뚜렷한 자아의식과 개성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전통적 여성과 달리 남성인물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애정전기는 여성문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며, 그 여성형상을 살피는 것은 중세 한자문화권에서의 여성현실 및 여성담론을 밝히는 데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최근 베트남의 대표적 전기소설집인 『전기만록』(傳奇漫錄)이 국내에 번역 소개되었다.¹⁾ 『전기만록』은 명대(明代) 구우(瞿佑)의 『전등신화』(剪燈新話)를 수용하면서도 베트남 현실생활의 질박함을 잘 드러낸 창조적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우리의 『금오신화』(金鰲新話)가 『전등신화』를 비롯한 중국의 전기적 전통을 발전적으로 흡수한 예와 비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장르관습의 전통에 놓여있는 세 전기소설집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 작품집의 몇몇 여성들은 각각의

1) 완서(阮煥) 저, 박희병 역,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돌베개, 2000).

여성현실을 일정 정도 반영하면서 생동감 넘치게 창조되어 있어 주목된다.

전기소설의 여성인물이 남성인물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세 작품집에도 다수의 작품에 여성인물이 등장하는데 특히 애정전기의 여성인물은 스스로의 정욕에 솔직하고 사랑을 열정적으로 표현하며 남성인물과의 애정관계에서도 종종 주도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는 이들 애정전기가 전통적인 유교적 예교(禮教)가 요구하는 여성상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지닌 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성인물이 자신의 정욕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곧바로 여성에 대해 진전된 관점을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인물의 정욕과 애정의 노골적 표현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여성의 성을 희화화(戲謔化)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소설에서 여성인물의 적극성은 여성의 대상화나 희화화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여성 자신의 애정과 삶에 대한 주체적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애정전기에 등장하는 남성인물은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 중세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남성중심의 통념에서 한 발 벗어난 진전된 관점 및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본고에서는 「전등신화」·「금오신화」·「전기만록」에 실린 애정전기를 중심으로 각각의 여성인물의 형상과 애정관계에 대한 남성인물의 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작품의 여성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것이 중세여성에 대한 보편담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성형상과 애정관계를 통해 나타난 작품의 주제 및 작가의식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작품에 대한 심화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세 작품집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전등신화」는 1378년 구우가 창작했다. 총 21편의 작품 중 애정전기로 볼 수 있는 작품은 「금봉채기」(金鳳釵記)·「연방루기」(聯芳樓記)·「등목취유취경원기」(藤穆醉遊聚景園記)·「위당기우기」(渭塘奇遇記)·「애경전」(愛卿傳)·

「취취전」(翠翠傳)·「녹의인전」(綠衣人傳)·「추향정기」(秋香亭記) 등이다.

「금오신화」는 김시습(金時習)의 작품으로 1470년을 전후한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총 5편의 작품 중 애정전기는 「만복사저포기」(萬福寺携蒲記)와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두 편이다.

「진기만록」은 베트남의 문인 완서의 작품으로 1530년대 혹은 40년대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총 20편의 작품 중 남녀의 애정을 소재로 하는 작품은 「취소전」(翠捎傳)·「여랑전」(麗娘傳)·「쾌주의부전」(快州義婦傳)·「남창여자록」(南昌女子錄)·「서원기우기」(西垣奇遇記) 등이다.²⁾

2. 애정주체로서의 여성

1) 애정의 긍정

「전등신화」와 「금오신화」의 애정전기에서 여성인물은 자신의 욕망을 뚜렷이 자각하고 긍정하며, 남녀가 애정관계를 맺는 데에는 여성인물의 원망(願望)과 선택, 적극적인 애정표현이 중요한 동인(動因)이 된다.

두 작품집에서 정육의 긍정이라는 주제는 주로 여성인물을 통해 표명된다. 「연방루기」(「전등」)의 난영(蘭英), 혜영(惠英)과 「만복사저포기」(「금오」)의 여주인공은 모두 사사로이 남자를 만나는 행위가 법도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일어난 사랑의 감정을 접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이생규장전」(「금오」)에서도 최랑(崔娘)은 부모 앞에서 이생(李生)에 대한 정념(情念)이 너무나 깊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며 결코 자신의 사랑을

2) 이들 작품을 모두 애정전기로 분류할 수 있는가는 좀더 고구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쾌주의부전」과 「남창여자록」은 남녀의 애정보다는 여성의 정절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서원기우기」는 정육의 경계를 주제로 삼고 있으며, 「여랑전」은 반명항쟁 의식을 고취하는 작품으로 본격적인 애정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면모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작품들이 모두 남녀의 애정관계를 소재로 다루고 있으므로 본고의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여성인물의 발언들은 유교적 예교를 이유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행동을 부정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는 작가의 생각을 잘 드러낸다.

『전등신화』와 『금오신화』의 애정전기에서 남녀의 결연은 여성인물의 적극적인 태도가 결정적 동인이 된다. 여성인물은 대개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애정의 상대를 선택하고, 상대남성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연방루기」(『전등』)에서 난영과 혜영의 정욕에 대한 솔직한 긍정은, 달밤에 누각 아래에서 목욕하는 정생(鄭生)에게 여지 열매를 던져 유혹하고 급기야 대바구니를 늘어뜨려 그를 자신들의 거처로 끌어들이는 대담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전등신화』의 또 다른 애정전기인 「녹의인전」은 전생과 현세, 이 세(二世)에 걸친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작품 속에서 남녀의 만남은 모두 여성인물의 원망과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 녹의인(綠衣人)은 평소 연모하던 다동(茶童)에게 비단주머니를 던져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다동은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녹의인에게 연지분갑을 선물한다. 죽은 뒤에도 녹의인은 다동을 잊지 못하고 이미 인간 세상에 환생한 옛 연인을 찾아온다.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에서도 최량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이생을 담 너머로 엿보고 그를 유혹하는 시를 읊는다. 이생의 화답시를 받은 최량은 ‘그대는 의심하지 말고, 황혼을 기약하세요.’³⁾라고 쓴 종이 쪽지를 담 너머로 던져 이생을 규방으로 끌어들인다. 이처럼 두 작품 집의 여성인물은 상대남성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애정관계에서도 매사 남성인물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대개의 남성인물은 이러한 여성인물에게 이끌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전기만록』의 여성인물 역시 정욕을 긍정하는 면모를 보인다. 가령 「서원기우기」에서는 종 신분의 두 여인이 ‘담벽 위에 걸터앉아 깔깔대고 웃으며’ ‘꽃과 과일 등을 던지며’⁴⁾ 하생(何生)을 유혹하고, 「여랑전」에서는 정

3) “將子無疑，昏以爲期。”(권지상)

4) “常見二女子，日乘西垣敗壁中，謹譁笑謔，或以佳菓投之，或以好花擲之。”(250면)

혼한 남녀주인공이 혼전에 이미 ‘부부와 진배없는’⁵⁾ 사이가 되며, 「취소전」에서는 서생(書生)에 대한 가희(歌姬)의 애정이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전기만록」의 작가는 정옥을 긍정하는 여성인물을 형상화했으면서도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있어 다른 두 작품집과는 차이를 보인다. 「취소전」의 여주인공 취소(翠@)는 「전등신화」나 「금오신화」의 여성인물과 마찬가지로 정옥을 긍정하고 상대남성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지만, 작가는 작품 말미의 논평을 통해 취소를 ‘부정한 여자’⁶⁾, 혹은 ‘본래 아름다운 덕을 지니지 못한’⁷⁾ 여자라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만록」의 작가는 다른 두 작품집과는 달리 말미에 논평을 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가(儒家)의 입장에서 등장인물의 면모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칭찬하거나 비난한다. 따라서 「전기만록」은 작품의 내용과 논평의 내용이 분리되는 이원적 구성을 보인다. 완서는 애정전기라는 문학양식을 수용하여 「전기만록」을 창작하면서도 주제의식만은 자신의 유교적 가치관에 맞게 변용했던 것이다.

2) 애정실현과 주체적 삶

애정전기의 여성인물은 애정의 긍정을 통해 중세적인 관습의 틀을 벗어나 근대적 의식의 맹아를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주체적인 여성의 문학적 등장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세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이 자신의 삶에 주체적 의지를 행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세 작품집에는 자신의 애정을 뚜렷이 자각하고 그 애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주체적 의지를 보여주는 여성인물이 등장한다.

「전등신화」의 애정전기에서 대개의 여성인물은 애정실현을 위해 시련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드러낸다. 「연방루기」의 난영과 혜영은 이른바

5) “雖聘期未定，而兩情私許，不費夫妻焉。”(295면)

6) “不正之女”(286면)

7) “本非令德”(286면)

‘사통’(私通)을 금지하는 사회규범을 어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후회나 죄의식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사통’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남성인물을 안심시키고 애정을 실현시킬 것을 결연히 다짐한다. 『전등신화』의 다른 애정전기에서도 여성인물이 애정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에는 주체적인 자기의지가 강하게 작용한다. 「취취전」의 취취(翠翠)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사(婚事)가 논의되는 것을 보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자신이 택한 남자에게 시집갈 것을 고집하며, 「등목취유취경원기」와 「녹의인전」의 여성인물은 음계(陰界)의 규율을 어기면서까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삼년이라는 기간을 양계(陽界)에서 보낸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사회적 관습이나 세계의 질서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애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인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자신을 애정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남성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애정의 주체로 인식하고 애정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인물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에서 최량은 주체적 의지가 특히 돋보이는 인물이다. 최량은 비록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통’을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애정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한다. 최량은 매우 주체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고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아는 여성이기도 하다. 또한 최량은 씩씩하고 강직하며 의지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자신의 거처로 숨어 들어온 이생이 남의 눈을 두려워하자 정색을 하며 남자의 소심함을 꾸짖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의해 행한 일은 분명히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당찬 의지를 표명한다. 이러한 태도는 『전등신화』의 「연방루기」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난영, 혜영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도 비교될 수 있다. 난영과 혜영이 ‘사통’의 관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정생을 걱정하며 안심시키는 데 반해, 최량은 단호한 태도로 남자의 소심함을 꾸짖음으로써 훨씬 강직하고 분명하며 담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최량은 강한 자기의지로 이생과의 애정을 이끌어 나가는 한편, 부모를 설득함으로써 이생과의 애정을 실현한다. 이후 최량은 전란의 와중에 외적에게 사

로잡힌 몸이 되자 정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다 처참히 살해당하는 데, 이러한 모습 역시 주체적 의지에 따라 삶을 살고자 했던 그녀의 굽히지 않는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전기만록』의 애정전기인 「취소전」의 여주인공 역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애정관계에 닥친 시련을 극복한다. 「취소전」은 가희인 취소와 문인인 여윤지(余潤之)의 사랑과 이별, 재회를 그리고 있다. 취소와 여윤지 앞에 애정장으로 등장하는 것은 부패한 권력자의 횡포이다. 설날 예불을 드리러 보천탑(報天搭)에 갔던 취소는 당대 권력가인 신주국(申柱國)의 눈에 띄고, 취소의 미모를 탐한 주국은 취소를 납치해 첩으로 삼는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강요된 이별 앞에서도 취소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는다. 취소는 여윤지가 보낸 이별의 편지에 대한 답장에서 '비록 잠시 절개를 잃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서방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⁸⁾다고 당차게 쓰고 있다.

또한 취소는 자신을 납치한 권력자 앞에서 여전히 옛 연인을 잊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짐짓 목을 매는 과감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여윤지와 재회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고 주국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윤지의 거처로 숨어들어 직접 만남을 시도하기도 한다. 결국 취소는 연등놀이의 혼란을 틈타 여윤지와 함께 멀리 달아난다. 취소가 애정실현을 위해 감행하는 행동은 매우 대담하고 적극적인 것이며, 이를 통해 그녀의 삶에 대한 자제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등신화』·『금오신화』·『전기만록』의 애정 전기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은 자신의 애정을 뚜렷이 자각하고 긍정하며 상대남성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애정관계에 닥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삶에 대한 주체적 태도를 보여준다.

8) “雖韓禍之柳，暫折長條；然合浦之珠，當還故郡。”(284면)

3. 애정관계에 대한 남성인물의 태도

『전등신화』·『금오신화』·『전기만록』에 실린 애정전기 중 몇몇 작품에는 여성에 대해 중세의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애정을 보여주는 남성인물이 등장한다. 이들은 남성중심적 시각이 아닌 좀더 평등한 시각으로 여성 및 애정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중세시대 남성에게 있어 사랑은 한때의 불장난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루지 못한 사랑은 대개의 남성에게 고통이나 상처로 남지 않으며, 애정관계를 맺기 전과 후에 남성의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감지되지 않곤 한다. 오히려 파국으로 끝난 애정관계는 ‘재앙으로서의 여성’에 빠지지 않은 남성의 현명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 작품집의 애정전기에 등장하는 몇몇 남성인물의 애정은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전등신화』의 애정전기에서 남성인물에 대한 여성인물의 애정이 강렬한 것이었던 만큼, 여성인물과의 운명적인 이별은 대개의 상대남성에게 커다란 흔적으로 남는다. 『등목취유취경원기』의 등목(滕穆)은 처음에는 방화(芳華)를 일시적인 만남의 상대쯤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⁹⁾ 그러나 삼 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후 방화가 떠나자 그녀를 잃은 슬픔에 과거도 보지 않고 장가도 들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서는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¹⁰⁾ 무심코 시작된 인연이 등목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것이다. 『녹의인전』의 조원(趙源)의 경우 녹의인에 대한 태도변화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처음 조원이 녹의인에게 가졌던 감정은 다분히 일시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던 전생의 일을 알게 된 후 여인에 대한

9) 처음에 등목은 방화의 외모에 반해 수작을 걸었지만, 정작 방화가 인연을 맺기를 청하자 ‘먼저 시에 화답한 것은 말이 나오는 대로 부른 것이요 별 뜻은 없었고, 앞일을 내다보고 한 말이 아니었다’(向者之詩, 卒口而出, 實本無意, 豈料便成語讖. 96면)는 말로 관계맺기를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등목에 대한 방화의 간절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10) “生後終身不娶, 入鴈蕩山採藥, 遂不復還.”(102면)

사랑이 깊어진다. 결국 조원은 녹의인이 떠난 후 그녀를 잊지 못하고 승려가 되어 일생을 마친다.¹¹⁾ 이처럼 「등목취유취경원기」와 「녹의인전」에서 여성인물에 대한 남성인물의 애정은 처음에는 일시적인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관계가 진행되면서 점점 애정이 깊어지고, 이별을 당해서는 마침내 그 사랑이 자신의 삶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전등신화」의 또 다른 작품인 「취취전」과 「추향정기」에서 여성의 정조에 대한 남성인물의 태도는 중세사회의 일반적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 진전된 시각을 보여준다. 「취취전」과 「추향정기」에서 여주인공들은 정절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만, 둘 다 정절을 지키지 못한다. 취취는 반란군 장교의 애첩이 되며, 채채(采采)는 끝까지 남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된다. 물론 두 여성이 정절이 테올로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 취취는 다른 남자의 첩으로 있었던 당시 상황을 수치스러워하며 한편으로는 남편의 노여움을 살까 걱정한다. 채채 역시 자신을 ‘마땅히 천하고 더럽다 하여 버리’지 않고, ‘어찌 아직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¹²⁾느냐고 상생(常生)에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훼손을 죄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두 여성의 훼손은 상대남성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취취전」의 김정은 갖은 고생 끝에 취취를 찾아내지만, 장군의 총애를 받고 있는 취취를 차마 아내라 밝히지 못한다. 남매 간이라는 거짓말로 만나 본 것도 단 한 번 뿐, 아내를 지적에 두고도 볼 수가 없었던 김정은 혹시나 다시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군의 막하를 떠나지 못하지만 기회는 오지 않고, 그리움에 지쳐 병이 들고 만다. 결국 김정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라비의 병을 핑계로 찾아온 아내의 품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김정은 전쟁과 권력이라는 세계의 폭력 앞에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의 사랑은 어떠한 가부장

11) “源感其情，不復再娶。投靈隱寺出家爲僧，終其身云。”(244면)

12) “兄若見之，亦當賤惡而棄去，尙何矜恤之有焉!”(252면)

적 인식도 중세적 통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진실한 것이다.

「추향정기」의 상생 역시 중세적 통념과는 무관한 사랑을 보여준다. 상생은 처음에는 신의를 지키지 않은 채채에 대해 원망을 품기도 했지만, 광포한 세월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부인이 되어 연명하고 있다¹³는 내용의 채채의 편지를 받고는 애정과 연민의 마음을 접지 못하고 내내 그녀를 그리워하며 슬퍼한다.

「취취전」과 「추향정기」에서 남성인물이 보여준 애정은 비록 외부세계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상대여성에게 사회적 통념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애정에 가부장제적 의식을 덧씌우지도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그만큼 이들은 중세의 일반적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 진전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등신화」가 남성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 진전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면, 「금오신화」는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의 독특한 관계성을 통해서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 진전된 관점을 보여준다.

「전등신화」와 마찬가지로 「금오신화」의 남성인물에게도 사랑은 생에 커다란 흔적으로 남게 된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여인을 잃은 양생(梁生)은 ‘다시는 장가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다 자취를 감추고’¹⁴ 「이생규장전」의 이생은 ‘죽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¹⁵ 그런데 「금오신화」에서 남녀주인공은 철저하게 일대일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관계를 ‘지움(知音)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전등신화」나 「전기만록」의 애정전기에서는 남녀주인공이 반드시 일대일

13) “避終風之狂暴，慮行露之沾濡，欲終守前盟，則鱗鴻永絕，欲徑行小諒，則溝瀆莫知，不幸委身從人，延命度日。”(250년)

14) “生後不復婚嫁，入智異山採藥，不知所終。”(권지상)

15) “生亦以追念之故，得病，數月而卒。”(권지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전등신화』의 「연방루기」에서는 두 자매가 동등하게 한 남성과 관계를 맺으며, 『전기만록』의 「서원기우기」에서도 두 여성과 한 남성이 관계를 맺는다. 반면 『금오신화』의 애정전기에서 남녀 주인공은 철저하게 일대일 관계일 뿐 아니라, 상호간에 매우 독점적이어서 일시적으로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은 없다. 이는 『전등신화』의 「금봉채기」에서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남자와 자신의 여동생을 맺어주거나, 『전기만록』의 「취소전」에서 여주인공이 자신을 대신해 시녀로 하여금 남자의 잠자리 시중을 들게 하는 등의 행동과는 전혀 구별되는 것이다.

『금오신화』의 일대일 남녀관계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특징은 서로를 ‘지움’의 관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금오신화』의 남녀주인공은 동일한 문예취향을 가졌으며 그로 인해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눈다. 이들은 동일한 문예취향과 정신적 교감을 통해 서로를 단순한 연인관계가 아니라 정신적 유대에 입각한 동지적 관계로 인식한다. 가령 「만복사저포기」의 여인과 양생은 끊임 없이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이생규장전」의 최랑과 이생 역시 사랑하면서도 공경하여 서로를 손님과 같이 대하고 언제나 시를 주고받으며 즐겼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여성인물과의 이별은 남성인물에게 커다란 실의로 다가오며, 결국 남성인물은 세상과 담을 쌓거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즉 『금오신화』의 남성인물에게 있어 상대여성을 잃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하는 정신적 동지를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된다.¹⁶⁾

한편 『금오신화』에서 남녀의 애정관계는 상호독점적일 뿐 아니라 세상과도 동떨어진 탈속적인 것이다. 가령 『전등신화』의 「등목취유취경월기」에서

16) 남녀주인공의 지고지순한 일대일 관계가 한국 애정전기의 특성이라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세밀히 밝혀진 바 있다. 박희병 교수는 한국 애정전기의 남녀주인공이 일단 한번 상대를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신의와 정절을 지키게 된다고 말하고, 전기적 인간이 본래 신의와 지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점,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이며, 그만큼 사랑이 깊다는 점, 동일한 문예취향을 가진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한국전기소설의 미학』(돌베개, 1997) 참조

방화는 등목의 고향으로 함께 가 살면서 '웃사람은 예로써 잘 받들고 비복(婢僕)은 은혜로써 거느려 사랑 이웃 사이에 환심을 얻'¹⁷⁾는다. 반면 같은 혼귀임에도 불구하고 「만복사저포기」의 여인은 양생의 눈에만 보일 뿐 타인에게 보이지 않으며, 양생을 '다복쑤이 들을 덮고 가시나무가 하늘 높이 치솟은 속'¹⁸⁾의 집으로 데려가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양생이 여인과 보낸 삼 일은 지상세계의 삼 년과 같다 하여, 공간 뿐 아니라 시간까지도 탈속적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생규장전」에서도 혼귀인 최랑과 이생은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길흉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으며, 늘 서로 시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내'¹⁹⁾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탈속적인 애정관계는 상호독점성을 더욱 공고한 것으로 한다.

「금오신화」의 애정관계가 철저하게 일대일 관계이며 상호독점적이고 탈속적이며 또한 서로를 유일하게 이해하는 동지적 관계로 그려지는 것은, 정치적 지조를 지키고 평생을 방외인(方外人)으로서 살다 간 작가 김시습의 특수한 생애 및 사상과 연관된다. 「금오신화」의 남녀관계는 지배—예속의 중세적 남녀관계와는 차별적인 것으로서 평등한 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기만록」에는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 남성중심의 이중적 시각을 지닌 남성인물이 등장하고 있어 「전등신화」나 「금오신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취소전」의 여운지는 「취취전」(「전등」)이나 「이생규장전」(「금오」)의 남성인물과는 다르게,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 중세 가부장제의 통념적 시각을 보여준다.

「취소전」의 작품 초반에서 취소에 대한 여운지의 사랑은 매우 돈독한 것이었다. 그는 취소를 너무도 사랑하여 한시도 떨어지지 못하고 과거시험 길

17) “美人處生之室，奉長上以禮，待婢僕以恩，左右隣里，俱得其歡心。”(98면)

18) “蓬蒿蔽野，荊棘參天。有一屋，小而極麗。”(권지상)

19) “生自是以後，懶於人事，雖親戚賓客賀弔，杜門不出，常與崔氏，或酬或和，琴瑟偕和，荏苒數年。”(권지상)

에도 동행한다. 것처럼 사랑한 취소가 권력자에게 납치되자 여윤지는 너무도 비통하여 과거시험마저 포기한다. 여윤지가 납치된 취소에게 몰래 보낸 편지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여윤지의 절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여윤지는 취소에 대한 그리움으로 공부는커녕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절실했던 여윤지의 마음은 작품 후반부로 가자 갑자기 돌변한다. 주국이 취소를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자 화가 난 여윤지는 취소와의 재회를 포기하고 돌아가려 한다. 재회를 포기한 여윤지가 시녀를 통해 취소에게 전하는 말에는 연인에 대한 애정이거나 연민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권력자로부터 무시당한 분노와 함께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만이 강조되고 있을 따름이다. 더불어 그 동안의 취소에 대한 애정마저 구슬을 얻으려 했던 **하찮은 욕심**이자 위태로운 잘못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여성 및 애정관계를 바라보는 중세남성의 이중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세의 일반적인 사회통념은 남성이 애정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 사랑의 감정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은 남성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랑에 대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여성에 대해 이중적 가치기준을 만들어낸다. 남성에게 있어 애정실현을 목적으로 할 때 여성은 절실한 사랑의 대상이지만, 애정관계가 파국을 맞는 순간 여성은 경계의 대상으로 바뀐다. 「취소전」의 여윤지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을 보여주는 중세남성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기만록」에도 중세적 통념을 벗어난 애정을 보여주는 남성인물이 등장한다. 「여랑전」의 이생(李生)이 그와 같은 인물인데, 그는 여랑(麗娘)의 거취와 상관없이 그녀를 향해 변함 없는 애정을 보여준다. 이생은 궁녀가 된 여랑으로부터 '다른 데 장가들어 한때의 사랑으로 평생을 그르치지 말'²⁰⁾라는 애절한 부탁의 편지까지 받지만, 차마 그녀를 향한 마음

20) “願君自愛，別締良媒；無以一日之恩，而誤百年之計。”(295년)

을 버리지 못한다. 이생은 여량을 잇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가보지만 그녀를 잇지도 못하고 장가도 들지 못한다. 그러던 중 명(明)나라의 군대가 베트남을 침략하자 이생은 적에게 쫓기고 있을 여량을 찾기 위해 전선으로 향한다. 여량을 만나기 위해 전장을 이리저리 훑어 다니던 이생은 여량이 포로가 되어 명나라로 끌려가기 직전에 자결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이생은 그녀의 무덤을 고향으로 이장한 뒤 다시는 장가들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 명나라에 항전한다. 이처럼 이생은 한 여성에 대한 일편단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중세남성의 애정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등신화』·『금오신화』·『전기만록』의 애정전기에 등장하는 몇몇 남성인물은 공통적으로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 중세적 통념을 벗어난 진전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전등신화』와 『전기만록』의 남성인물은 정절을 잃은 상대여성에 대해서도 변함 없는 사랑을 지님으로써 중세적 통념과는 무관한 애정을 보여주고, 『금오신화』의 남성인물은 상대여성과의 관계를 ‘지음’의 관계, 혹은 정신적 동지의 관계로 여김으로써 평등에 가까운 애정관계를 보여준다. 한편, 『전기만록』에는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 가부장제적 이중시각을 지닌 남성인물도 등장하고 있어 『전등신화』나 『금오신화』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물론 이것으로 애정전기의 여성인식이 중세의 가부장적 여성인식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성인물의 적극성이 단지 애정의 영역에 한해 인정되는 점이나, 여성인물의 삶에 대한 주체성이 남성인물과의 관계성 하에서만 인정되는 점은 역시 애정전기가 드러내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인물이 분명 당대의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숙하고 순결한 여성으로 언급되는 점 등에는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한 남성작가의 중세적 편견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특히, 여성인물만이 적극적으로 남성인물을 유혹하고 동침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당대의 일반적 여성현실 및 여성의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며, 남성작가의 일방적이고 은밀한 꿈꾸

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소설이 보여주는 파격적인 여성형상과 중세적 통념을 벗어난 남성의 애정인식은 당대사회를 지배하던 유교적 규범에 충분히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등신화』와 『금오신화』가 여러 시기에 걸쳐 금서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4. 애정관계를 통해 본 작가의식 및 세계관

『전등신화』의 작가 구우(1347~1433)는 소년기와 청년기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냈다. 구우는 『전등신화』 전체를 통해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는데, 특히 「취취전」과 「추향정기」는 전란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겨지는 남녀의 삶과 사랑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수작이다. 두 작품에서 발달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남자와의 사랑을 가꾸어 가던 여주인공들은 전란을 겪고 난 뒤에는 허무와 무기력감, 삶에 대한 질은 좌절을 경험한다. 구우는 자신의 전란체험을 통해 전쟁의 폭력 속에 희생되는 인간에 대해 깊은 슬픔과 연민의 시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²¹⁾ 「취취전」과 「추향정기」에서 작가가 여성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횡포한 세계에 내던져진 인간에 대한 연민과 이해의 시선이다. 이러한 시선은 사회적 규범이나 통념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작가로 하여금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서도 중세적 통념을 벗어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두 편지의 구절은 구우의 인간인식 및 세계인식이 중세의 윤리적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에 입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동분서주 이리 도망 저리 도망하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 아버님께서

21) 구우의 전기적 사실과 그의 전란체험이 『전등신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박희병, 「한국·중국·베트남 전기소설의 미적 특질 비교(『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 321면) 참조

도 작고하시었습니다. 광포한 세상의 바람을 피하고 길가 이슬에 젖음을 염려하며 끝까지 전날의 언약을 지키려 했으나 당신의 소식은 끊어지고 찾아갈 길도 없어 불행히 몸을 남에게 의탁하여 목숨을 이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롭고 연약한 몸으로 어려운 세상을 만나니 대하는 것 보는 것이 모두 한스럽고 남을 대할 때는 억지로 웃음지으나 적적할 때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²⁰⁾

아내로서 삼종지(三從之義)를 따르는 것은 인륜(人倫)으로서 이미 정해진 바 이오나, 다난한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²¹⁾

위의 인용문은 각각 「추향정기」와 「취취전」에서 여주인공들이 쓴 편지의 일부분이다. 여기에서 두 여성은 정조를 지키는 것이 인륜에 합당한 일이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광포한 세월을 견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채채의 편지에서는 전쟁이라는 시련에 처한 여성현실에 대한 작가의 연민과 이해의 시선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전등신화』에서 구우가 정절이데올로기를 부정하는 지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우는 「애경전」에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여성을 긍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정절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준 바 있다. 이는 한편으로 구우가 가부장제적 여성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구우는 정절을 지키는 여성을 형상화하면서도 ‘열녀’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기보다는 전란의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묘사했으며, 정조를 잃은 여성에 대해서도 변함 없는 사랑을

22) “東西奔塵，左右逃遁，祖母辭堂，先君捐館。避終風之狂暴，慮行露之沾濡，欲終守前盟，則麟鴻永絕，欲徑行小諒，則溝瀆莫知，不幸委身從人，延命度日。願伶俜之弱質，值屯蹙之衰年，往往對景關情，逢時起恨，雖應酬之際，勉為笑權，而岑寂之中，不勝傷感。”(250~251면)

23) “夫唱婦隨，夙著三從之義，在人倫而已定，何時事之艱!”(178면)

보여주는 남성인물을 **형상화함**으로써 중세적 통념에서 한 발 나아간 여성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구우가 『전등신화』에서 여성 및 애정 관계에 대해 진전된 시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여성의 삶을 전쟁으로 희생된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금오신화』의 작가 김시습(1435~1493)은 세속의 삶을 버리고 평생을 방외인으로 살면서 현실정치와 타협하지 **않은** 인물이다. 『금오신화』에는 평생 김시습을 떠나지 않았던 고독의 정조와, 부패한 정치현실을 개탄하고 초월을 열망했던 작가정신이 응집되어 있다. 앞서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전등신화』의 남녀관계가 대개 공개적이고 사회적으로 열려있으며 현실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금오신화』의 남녀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하며 탈속적이고 철저히 상호독점적이다. 김시습은 『금오신화』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남녀관계를 통해 자신이 평생 안고 살았던 소외와 고독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탈속적인 남녀관계를 통해 현실초월의 원망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김시습은 『금오신화』에서 서로에 대해 철저히 지조를 지키는 남녀관계를 통해 자신이 고수하려 했던 가치인 ‘절의’(節義)를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이생규장전』의 최랑은 이러한 김시습의 사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이상적 인물이다. 『전등신화』나 『전기만록』이 중세여성을 좀더 인간적으로 그리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금오신화』의 여성인물이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이 강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최랑이 죽음으로 지킨 정절은 정절이데올로기의 표방이라는 성격보다는 현실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저항정신과, 생에 대한 주체성의 한 표현형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최랑이 부덕(婦德)이나 유교적 예교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열녀’가 아니라 오히려 중세의 여성적 규범에서 상당히 벗어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이처럼 김시습이 최랑과 같이 주체적 의지를 가진 여성을 창조하고, 지배—예속의 관계가 아닌 평등에 가까운 남녀관계를 그려낼 수 있었던 까닭은, 『금오신화』에 그의 가장 주요한 생의 가치였던 ‘절의’라는 사상을 담고자 했기 때문이다.²⁰

완서(16세기 중엽)의 『전기만록』은 현실정치에 대한 풍자와 비판 및 명나라에 대한 항쟁의지와 민족의식을 담고 있으며, 베트남 고유의 문화와 풍토 및 현실을 질게 드러냄으로써 탁월한 자기화를 이루어낸 작품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 『전기만록』은 다른 두 작품집과는 달리 유교적 윤리규범의 실천과 강한 이데올로기적 교화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기만록』의 몇몇 여성인물은 정욕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애정을 실현하는 면모를 보이지만 완서는 논평을 통해 이러한 여성인물의 ‘부도덕성’을 비난하고, 그러한 여성인물과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쾌주의부전」이나 「남창여자록」의 여성인물은 남성의 배신이나 학대에도 한결같이 삼종지도(三從之道)를 실천하고 정절을 지키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본고의 논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씨업원기」(陶氏業冤記)·「창강요괴록」(昌江妖怪錄)·「목면수전」(木綿樹傳) 등에는 음탕한 여인, 한을 품고 죽어 남성에게 해꼬지를 하는 여귀가 등장해 세 작품집 가운데 부정적인 여성인물이 가장 많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처럼 완서는 일단 겉으로는 철저히 유교적 시각에 입각한 애정관과 여성인식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전기만록』의 여성형상이 다른 두 작품집에 비해 더 중세적이거나 가부장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논평과 상관없이 정욕을 긍정하고 애정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성인물과 가부장적 성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율적 욕망을 지녔다는 이유로 ‘마녀’나 혹은 ‘음녀’라는 왜곡된 이미지로 형상화된 여성인물들은 그 나름대로 생동감이 넘치며 매우 뛰어난게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만록』의 작품과 논평이라는 이원적 구성이 지닌 의미와 작가의식은 다른 장을 통해 좀더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4) 김시습의 ‘절의’라는 사상과 『금오신화』에 대해서는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참조.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등신화』·『금오신화』·『전기만록』의 애정 전기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은 정욕을 긍정하고 상대남성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애정관계에 닥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삶에 대한 주체적 태도를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애정 전기에 등장하는 몇몇 남성인물은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 중세적 통념을 벗어난 진전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등신화』와 『전기만록』의 남성인물은 정절을 잃은 상대여성에 대해서도 변함 없는 사랑을 지냄으로써 중세적 통념과는 무관한 애정을 보여주었고, 『금오신화』의 남성인물은 상대여성과의 관계를 '지움'의 관계, 혹은 정신적 동지의 관계로 여김으로써 평등에 가까운 애정 관계를 보여주었다. 한편, 『전기만록』에는 여성 및 애정관계에 대해 가부장 제적 이중시각을 지닌 남성인물도 등장하고 있어 『전등신화』나 『금오신화』와 차이를 보였다.

『전등신화』와 『금오신화』의 작가는 기본적으로 중세 가부장제의 전통적인 여성인식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거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유교적 윤리 규범에 우선하는 휴머니즘이나 저항정신은 당대의 통념을 벗어나는 진전된 여성인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기만록』은 다른 두 작품집과는 달리 유교적 윤리규범의 실천과 교화를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작가 완서는 중세 가부장제적 여성인식에 가장 충실한 작가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만록』은 작품과 논평으로 분리되는 이원적 구성을 지냄으로써 역시 작품 속에 그려진 여성형상 및 애정관계는 중세적 통념을 벗어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瞿 佑, 『剪燈新話』, 《古本小說集成》編委會編, 上海古籍出版社, 1981
- _____, 이경선 역, 『전등신화』, 세계문학전집 62, 을유문화사, 1971
- 김시습, 『금오신화』, 아세아문화사, 1973
- _____, 심경호 역,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 완 서, 박희병 역,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 돌베개, 2000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Pam Morris,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 강진옥, 「금오신화와 만남의 문제」,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 『고전소설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 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 『민족문화사연구』제9호, 민족문화사연구소, 1996
- 박희병, 「한국·중국·베트남 전기소설의 미적 특질 비교」,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 돌베개, 2000
- 윤재민, 「전기소설의 성격」, 『한국한문학연구』창립20주년기념특집호, 한국한문학회, 1996
- 전혜경, 「한·중·월 전기소설의 비교연구」, 숭실대 박사논문, 1994

Abstract

Women And Affection in Old Love Stories of Korea,
China and Vietnam, centering around *Jeon-deung-sin-*
hwa(剪燈新話) · *Keum-o-sin-hwa*(金鰲新話) · *Jeon-ki-*
man-rok(傳奇漫錄)

Jeong, Yu-Jin

This thesis analyzed and compared the features and aspects of women characters and love affair among women and men in old love stories like *Jeon-deung-sin-hwa* 剪燈新話(China) · *Keum-o-sin-hwa* 金鰲新話(Korea) · *J n-ki-man-rok* 傳奇漫錄(Vietnam) from the standpoint of feminist thought.

Old Love Story was general literature genre in the realm of Chinese characters' culture and the salient traits of heroine characters in these works is positive and vigorous in contrast with the one of traditional women in the middle age. It is seemed a good object of comparative case study because especially three works above mentioned have creativity according to culture and sense of each nation and author though under influence of the common genre custom as Old Love Story of Tang(唐)-Empire. In addition, the heroines of these works do not only reflect women's way of life in that time but also resist it bravely.

Now to conclude, heroins of these works assumed much more active disposition than the middle-age's stereotypical female images. They confirm sexual desire of their own, show their affection and overcome

the various difficulties in the way of progression of their affection. They reveal affirmative and subjective attitude in their lives. Also a few men characters of these works are contrary to middle-age's common idea.

Gu-wu(瞿佑) in *Jeon-deung-sin-hwa* (剪燈新話) shows progressive sight of woman and affection relationship because he has experienced war and got a vision of perception and compassion about vulnerable human being. His humanistic view of world takes precedence of the contemporary idea universally accepted and reveals itself pliable to woman's desire and faithfulness to her husband.

The reason why Kim si-seup(金時習) can make strong and woman figure in his work, *Keum-o-sin-hwa* (金鰲新話) is the resistant view of world which he has in the course of life never compromising with the world. In the work above, he embodies the fidelity to his principle through like-minded relationship between both sexes and women who hold their faithfulness, while portraying the sentiment of loneliness

Jeon-ki-man-rok(傳奇漫錄) describes women who confirm their passion and try to come true it. But the author criticizes these women characters from the position of confucianism as well as depicts them such as virgin-ghost or evil spirit(妖鬼).